

“미중 무역수지 격차 커질때 관세 자동인상”

무역합의 ‘구속력’에 초점...뉴욕타임스 협상 앞두고 보도 양국 정부 일시적 타결 필요...트럼프 “시한 연장할 수도”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에서 합의의 ‘구속력’이 무역전쟁을 해결할 열쇠로 떠오르면서 양국 무역수지 격차가 커질 때 관세를 자동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뉴욕타임스(NYT)는 오는 14~15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고위급 무역협상에서 미국 협상단을 이끄는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과 로버트 라이히라이저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최우선으로 삼는 것은 미·중 합의의 실제 효력 발휘 여부라고 12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중국이 17년 전 세계무역기구(WTO)

에 가입했을 때를 비롯해 자유무역과 시장 개방을 수차례 약속하고도 번번이 지키지 않았다고 보는 미국으로서는 이번 무역 합의가 어떤 식으로 성사되든지 중국이 이를 이행하게 할 만한 위력을 갖는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뜻이다. 미국 협상단은 중국의 대미수출이 계속 증가하거나 중국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으면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매기는 관세를 자동으로 인상하는 장치를 설정해두기를 바란다고 익명을 요구한 소식통 3명이 전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미국 협상단은 이런 방식을 원하고 있으며 정부가 미국 산업에

해를 끼친다고 판단한 수입품에 대해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미 무역법 421조 적용 요건을 완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고려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장치에 대해 중국은 목소리 높여 반대했던 전력이 있다. 2001년 중국이 WTO에 가입했을 당시 WTO는 회원국들이 국내 시장을 교란하는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인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승인했다. 바락 오바마 정부는 이 규정을 활용해 2009년 1차례 중국산 타이어에 대해 관세를 인상했으며 중국은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로 응수했다. 이 WTO 규정은 2013년 파기됐다. 내달 1일로 시한이 잡혀 있는 미·중 무역 협상 타결 가능성은 여전히 안갯속에 있다.

물론 중국이 경기 둔화에 직면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최근 잇단 정치적 패배를 겪고 있는 만큼 양국 정부는 일시적인 협상 타결이 필요한 처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합의 시한을 약간 연장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하지만 중국 경제정책을 잘 아는 소식통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일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한 ‘임시방편’ 합의조차 중국 정부 내부에서 많은 불만을 샀다. 이것이 이후 양국 협상에 중대한 진전이 없었던 하나의 요인이 됐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중국이 앞서 미국에 한 약속 이행 방식, 지식재산권 보호·미국 기업에 대한 기술 이전 강요 금지, 수출업체들에 대한 중국의 보조·지원 제한 등 과제도 많다. /연합뉴스

베트남 “2차 북미 정상회담, 경제발전 기회”

베트남은 오는 27~28일 하노이에서 열리는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가 국가 위상 제고와 경제발전 등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13일 일간 푸오이쎄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응우옌 쉰언 폭 베트남 총리는 전날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지로 선정된 것에 대해 “베트남의 투자환경이 좋고 발전모델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치안이 환상적이라는 것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폭 총리는 증권거래소에서 한 연설에서 이같이 밝히고 “우리의 국제적인 역할을 발휘해 ‘베트남’이라는 말이 울려 퍼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온라인 매체 VN익프레스는 전문가들의 코멘트를 인용해 북미회담 유치 효과에 대한 기대를 전했다. 싱가포르 ISEAS-유소프 이삭 연구소

의 레 흥 히엵 연구원은 이번 북미회담 유치가 베트남 경제발전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히엵 연구원은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집중한 보도로 베트남이 특히 관광객과 투자자들로부터 엄청난 관심을 끌 것”이라고 말했다. 레 투 흐엉 호주전략정책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베트남이 북미회담 개최지로 선정된 것은 양측이 그곳에서 대화를 고려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중립적이고 믿을 만한 파트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찰스 암스트롱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는 2017년 베트남 다낭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거론하며 “베트남은 대형 국제행사에 필요한 실행계획과 안전을 보장할 능력이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

미·중 AI 주도권 다툼

트럼프 투자확대 행정명령 서명 중전문가 “경쟁력 충분” 자신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기술로 꼽히는 인공지능(AI) 분야의 연구 개발과 투자를 확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AI 분야에 공을 들이려는 중국과 주도권 다툼이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트럼프 대통령의 AI 연구 육성 지시가 중국을 의식한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인 가운데 중국은 AI 주도권 싸움에 자신감을 드러냈다. 리이 상하이사회과학원 인터넷연구원 연구원은 글로벌 타임스 인터뷰에서 “첨단 기술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확실히 중국에 큰 견제가 될 것”이라며 “또 전략적 경쟁자들로부터 AI 기술을 보호하라는 뜻을 담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중국의 AI 기업들은 미국에서 앞으로 더 큰 압박과 비우호적인 환경을 직면할 것”이라며 “그러나 이런 도전들은 AI 기업들을 더 강하게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주한미군 분담금 추가 인상 요구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각료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한미가 올해 한국이 부담할 주한미군 주둔비를 작년보다 8.2% 인상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각료회의에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추가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

‘군사굴기’ 中 올 국방예산 10% 늘어 200조원 육박

중국 ‘군사굴기’를 주장하며 군 현대화 등 군사 분야 개혁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올해 중국의 국방비가 1조2천억 위안(200조원 상당)에 달할 것이라고 중국 전문가들이 예상했다.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13일 중국 인민해방군 현대화와 불안정한 국제 안보 환경 변화 등으로 인해 중국의 올해 국방비가 1조2천억 위안에 달할 것이라고 군사 전문가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군사 분야 전문가인 웨이둥위는 “올해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중국의 올해 국방예산이 공개될 것”이라며 “이는 전년과 비교해 약 10% 증가할 액수”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익명의 전문가는 “중국의 국방비 증가는 인민해방군의 전투력 증강과 무기 장비의 현대화에 도움이 된다”면서 “올해 국방비는 지난해보다 8~9% 증가하는 것이 중국 상황에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중국군은 지난해 국방예산으로 1조1천100억 위안을 책정했으며, 이는 2017년 국방비보다 8.1% 증가할 수 있다. 웨이둥위는 “인민해방군은 지난해 증액된 국방비는 주로 무기와 장비 개발, 훈련 환경 개선, 군 개혁, 군인 임금과 복지에 사용했다고 밝혔다”면서 “올해도 이와 비슷한 형태로 증액된 국방비가 사용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연합뉴스

에콰도르, IMF와 금융지원 공식협의 나서

국제통화기금(IMF)이 에콰도르와 금융지원을 두고 공식협의에 나섰다. 경제가 경착륙할 우려에 직면한 에콰도르 정부가 구조적으로 경제 제도를 개선한다며 지원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제리 라이스 IMF 대변인은 12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IMF는 제휴하는 다른 다국적 금융기구들과 함께 전체 에콰도르인의 이익을 위해 에콰도르 경제를 강화할 정책을 두고 에콰도르 당국과 긴밀한 대화를 이어왔다”고 밝혔다. 라이스 대변인은 “이 같은 파트너십의 일부로 IMF와 에콰도르는 IMF가 지원하는 금융협정 체결을 위해 노력한다는 것을 목표로 삼아 협의를 진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IMF는 에콰도르에 대한 잠재적 지원책의 목표로 빈민과 취약계층 보호, 경쟁력과 일자리 창출 강화, 투명성 개선과 부패척결 강화를 들었다. 에콰도르에서 미국 달러의 유통을 자유롭게 하는 ‘달러화’(달러화)의 제도적 토대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라이스 대변인은 “IMF 대표단이 현재 에콰도르 키토에 체류해 대화하며 IMF가 에콰도르 정부 정책 지원할 최상의 방안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에콰도르 정부도 IMF를 비롯한 다른 국제 금융기구들과 논의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레닌 모레노 에콰도르 대통령은 올해 1월 세계경제포럼에서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를 만나 지원을 요청했다. /연합뉴스

화성 탐사선 오퍼튜니티호 곧 사망 선고

NASA와 8개월째 연락 두절 화성의 먼지 폭풍이 휩싸인 뒤 8개월째 연락이 두절된 탐사 로버 ‘오퍼튜니티(Opportunity)’에 대해 곧 사망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다. 미국항공우주국(NASA)은 13일 오전 11시(이하 미국 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패서디나의 제트추진연구소(JPL)에서 짐 브라이든스틴 NASA 국장관과 오퍼튜니티 운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언론브리핑을 갖는다고 밝혔다. NASA는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이 브리핑에 앞서 12일 밤 오퍼튜니티와 마지막 교신 시도를 할 예정이어서 공식적 사망 선고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오퍼튜니티는 수십년 사이 최악의 먼지 폭풍이 화성 전체를 휘감고 수개월째 계속되면서 지난해 6월 10일 교신을 끝으로 연락이 끊긴 상태다. 먼지폭풍으로 태양광 충전이 어려워 동력 사용량을 줄이려고 동면에 들었으나 이후 영영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 NASA는 먼지 폭풍이 가라앉은 뒤 1천여회 이상 복귀 명령 신호를 보냈으나 오퍼튜니티로부터는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연합뉴스

근린상가, 회사 사정상 **급매**합니다.



-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 1174번지, 가도빌딩 (진흥고, 전남공업고 옆 사거리 코너 건물)
- 대지지분 52평, 건물 170평(실100평)
- 4층중 2층 201호, 준주거지역
- 2010년 준공, 주차편리, 전망좋음
- 주위에 고등학교/대학교 역사문화공원 단독주택 아파트 상업용건물등 혼재, 위치좋음
- 감정/시세-11억
- 급매 - 8억(2019년 2월 28일까지)

문의. 010-6834-7400